

방치하면 안구 건강 치명적

의료 칼럼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은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 약 333만명으로 2016년 (269만명)과 비교해 23.8%(6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보다 만성피로, 성기능장애, 족부궤양,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안질환 등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질환이다. 특히 눈에는 당뇨망막증 등 합병증이 생기는 데 이는 곧 삶의 질과 연관되므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라안과병원 장재용 원장의 도움말로 당뇨망막병증의 예방과 치료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원인

당뇨병은 체내 인슐린의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그 작용이 부족해 혈당치가 높아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여러가지 대사이상과 만성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다. 망막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가장 왕성해 단위 조직 당 산소요구량이 가장 큰 조직으로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의 경우 전신의 미세혈관 순환장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한, 망막은 사람의 시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힘든 조직이기도 하다.

당뇨로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신경이나 신장 그리고 망막과 전신의 크고 작은 혈관들이 위협을 받아 만성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당뇨병 환자의 약 절반 정도는 이 당뇨망막병증이 생기게 되며 성인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당뇨망막증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환자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나빠지기 전, 눈앞에 아지랑이가 어튼거리거나 날파리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이 생기는 정도다. 이는 눈속 유리체가 액화되거나 가벼운 안구 내 출혈로도 생길 수 있다.

환자들은 주로 망막증이 상당히 진행돼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에 병이 번져야 스스로 시력 장애를 느낀다.

하지만 망막 중심부 이외의 지역에서 부종이나 출혈반이 생길 경우 대다수가 시력 저하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당뇨망막병증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으므로 일단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안과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라안과병원 장재용 원장이 당뇨망막병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 절반 합병증 발생

초기엔 시력저하 증상 못 느껴

실명 예방 조기발견 치료 중요

40대 이후 안과 정기검진 필수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비증식과 증식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약 90%가 비증식에 속하며 망막혈관의 이상소견과 출혈, 망막 부종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진찰을 계속 받아야 한다.

증식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비정상적인 신생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게 된다. 이 혈관들은 쉽게 출혈을 일으키고 또 그 주위로 막들이 자라나와 망막을 잡아 당겨서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한다.

신생혈관의 출혈로 유리체출혈이 생기면 눈앞에 떠다니는 그림자가 생기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등 증상이 나타나고, 출혈된 피는 자연히 흡수되기도 하지만 흡수되지 않고 오래 가면 망막박리 등 더 큰 이상을 일으켜서 심각한 시력장애를 일으킨다.

◇치료

당뇨망막병증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철저한 혈당관리로 진행을 억제하고 망막혈관을 보호하는 약물 치료를 한다.

황반부종이 진행됐다면 국소레이저치료와 유리체강내 항체주사 및 스테로이드 주사를, 신생혈관으로 망막 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망막을 레이저로 파괴해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범망막 광응고술 또는 유리체강내 항체주사를 시행한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해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거나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 유리체 절제술로 출혈과 박리를 일으키는 막을 제거해 준다.

당뇨망막병증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비가역적인 상태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지만, 초기에 치료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완화하고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지체 없이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예방

당뇨망막병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올바른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흡연과 음주를 삼가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보살피는 노력도 중요하다.

40대 이후부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안과를 방문, 안저촬영검사를 통해 망막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망막병증 위험군에 속해 안과 정기검진과 상담을 생활화해야 한다.

/정리=최환준 기자



도움말

장재용 원장
보라안과병원

쌍둥이 유산 남은 태아 만삭 분만

전남대병원 김윤하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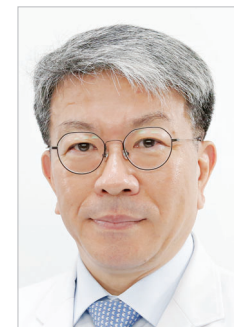
“학술지 발표 없어…드문 일”

광주의 30대 산모가 쌍둥이 임신 중 한 명의 태아를 유산했지만 생존해 있던 다른 한 명의 태아를 성공적으로 만삭 분만에 화제다.

특히 사산아 출산 후 자궁입구를 묶는 자궁목 결찰술 없이 남은 태아의 만삭 분만 사례는 매우 드물어 학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센터장 김윤하)에 따르면 김보미씨(30)는 지난 6일 오전 전남대병원 분만실에서 임신 38주만에 제왕절개술을 통해 3.26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분만했다. 김씨는 당초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임신 20주 2일째에 복통이 심해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로 전원 후 치료했지만 다음날 태아를 뒀고 있는 양막이 파열돼 첫 번째 태아의 양수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두 번째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20주 4일



김윤하 교수

째 양막 파열된 태아를 선택 유산시키는 시술을 시행, 결국 21주 2일 첫 번째 태아가 사산됐다. 이 때 태반은 자궁 안에 남긴 채 첫 번째 태아의 탯줄을 절단하고 봉합해 임신을 유지시켰다. 이후에도 김씨는 조기분만 진통이 지속

돼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지속했다. 결국 김씨의 건강 상태가 안정돼 임신 34주 2일이 되자 퇴원했으며, 임신 38주에 제왕절개술을 통해 남자아이를 분만했다.

김 센터장은 “사산아 출산 후 자궁목 결찰술 없이 117일이 지나고 만삭 분만한 경우는 아직 세계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렵고 드문 기적 같은 경우였다”며 “산모와 남편이 의료진을 믿고 잘 따라줬으며, 이로 인해 두 번째 태아가 잘 버텨줘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앞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분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사회공헌대상 복지부 장관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2022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1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은 매년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과 기업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병원장 직할로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 분과별(환경, 사회책임, 거버넌스)로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 등을 선정해 실행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밝은안과21병원, 몽골 수흐바타르구 의원단 검진

밝은안과21병원은최근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의 요청으로 몽골 수흐바타르구의회 의원단 검진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몽골 수흐바타르구의회 의원단 10명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의 의료관광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몽골 선진 의료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구의원단은 밝은안과21병원을 방문해 안과 분야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체험했다.

몽골 구의원단은 기본적인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를 비롯해 망막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후에는 밝은안과21병원 주종대 원장과 양필중 원장에게 진료를 받으며 눈 건강 및 의료 시스템에 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눈 종합검진을 받은 몽골 구의원단은 우수한 의료진, 대규모 시설 및 최첨단 의료기기, 전문화된 의료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환준 기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죽부센터
어깨/팔꿈치센터
척추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원센트럴병원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광주금연지원센터**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SANGMU SU DENTAL CLINIC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www.kshosp.com

KS+ KS병원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양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